

행복교육은 인성교육에 달려있다



강연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총리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과 국회선플정치위원회는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초청하여 강연과 함께 국회 선플포럼을 개최했다.

“꿈 끼있는 행복교육, 신뢰받는 바른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선플 국회의원 및 선플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영상 시청과 서석해 한중선플CEO포럼 회장의 선플 선언문 낭독에 이어 내빈소개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서상기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12년 국회의원 293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선플운동은 국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선플운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그런 계획을 뒷받침 해줄 내용을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믿고 큰 힘을 얻어서 선플 모임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플운동에 헌신,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춘진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말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좋은 말과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만큼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잘 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장본인이며 사랑합니다”고 전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선플포럼을

선플재단, 황우여 교육부총리 초청 국회에서 선플포럼 개최
‘꿈 끼있는 행복교육, 신뢰받는 바른교육’ 주제 100여 명 참석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어릴적부터 시작해야하고 선플운동은 청소년들이 악플 대신 선플을 달자는 인성교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선플 600만개를 돌파하고 50만명의 회원을 돌파했다”며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한동권 선플포럼 회장의 “황우여 부총리님의 강연을 통해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삶이 행복한 강연이 될 것 같다”는 인사말에 이어 입침화 백석대 음대 교수가 축가를 부르고, 강연에 나선 황우여 교육부총리 소개로 이어졌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며 한국

교육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배우겠다고 하는데 한국교육이 성과를 낸 것은 20년전 531 교육개혁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로 합치게 달리와 성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자살이 제일 많고, 출산율이 제일 적습니다. 그동안 효율성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교육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교육의 내용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문기초와 연구중심의 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만들어 인성과 취업을 두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의 혁신이 국가의 혁신이고 경제와 맞물려 교육개혁이 성공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넘어

방향과 목표까지도 잘 하는 나라가 돼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효대 의원(국회선플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중·고교 선플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줄어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내현 의원(국회선플위원회 간사)의 “행복지수 사회보장제도도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으로 진행된 초청 강연에 이어 감사패 전달로 마무리 되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조용태 기자



선플재단은 6일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초청, 국회 선플포럼을 개최했다.



5월 23일(토) 오후 1:30,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가 개최됐다. (첫 번째줄 왼쪽부터 위정후우 인민당 공동대표, 장원 중국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실 대변인, 저우위보 인민당 한국지국 대표,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선플대전지부 고문 민병주 국회의원, 국회선플정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선플재단 공동대표 정준호 영화배우)

한중일 3개국서 동시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선플재단,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 개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은 5월 23일(토) 오후 1:30,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청소년 선플 평화선언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한중일 청소년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한중일 친선우호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과 선플문자보내기는 한중일 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중국 북경 어언대학교 행사현장은 중국 인민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

으며, 중국 쓰촨성에서 ‘용덕그룹 선플운동단’과 일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선플선언식과 선플 평화·우호문자 보내기로 진행됐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을 계기로 한중일 청소년들이 응원하고 배려의 선플운동을 통해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광화문 선플음악회’에는 선플홍보대사인 불후의 명곡 가수 ‘알리’와 팝페라 가수 ‘이시벨’, 비보이 세계1위 ‘퓨전MC’, 중국가수 르렌렌, 걸그룹 써니데이즈, 신인가수 제이블랙, 바이올리니스트 신운성, 가수 신현

우 등이 출연하여 음악을 통해 응원하고 배려의 선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위한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4대문(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숙정문)와 용궁원에 서 각각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까지 선플거리캠페인을 진행하는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으로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세대에겐 바른 자세의 걷기와 체조를 통한 자세교정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조용태 기자

‘유커’ 대신 중국관광객으로 바뀌 써야

최근 몇 년간 제주도에 중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들러서 땅을 사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제주도를 사서 지금은 제주도의 30%가 넘는 부분이 중국인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관광을 하러 온다.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을 부르는 단어가 다양해져서 ‘유커’, ‘요우커’, ‘유우커’ 등등 여러 가지로 불렸다. 그러자 국립국어원이 한국언어문화연구원과 함께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유커’라고 정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유커’란 ‘관광객’이라는 뜻이며 한국 사람이 중국을 관광하러 가도 ‘유커’라고 말한다면 어감을 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국립국어원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 협회가 최소한의 사전조사도 안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커’라고 정

의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그냥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굳이 외래어로 표기하려 한 것 자체가 국립국어원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국어정책 추진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인다. 국립국어원 자체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외래어로 표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니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을 소중히 쓰지 않고 외래어와 외국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글문화원대 대학생기자단2기 박지현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헨들 개발」
-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고품질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선플재단, 폴 포츠와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킨다

폴 포츠 선플 국제친선대사 위촉



선플재단은 4월 10일, 오레리가수 폴 포츠의 선플 국제친선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선플국제친선대사 협회 이사장 민병철, 선플국제친선대사 오레리 가수 폴 포츠,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악플로 인해 생명을 던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폴 포츠'의 감동적인 노래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은 4월 10일(금) 오후 2시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올라선 영국의 '폴 포츠'를 초청하여 '선플 국제친선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선플국제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팝페라 가수 '이샤벨'이 '폴 포츠'에게 선플운동을 소개하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 취지에 공감한 '폴 포츠'가 선플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폴 포츠'는 위촉식에서 소감을 통해 "선플 홍보대사로서 악플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더 이상 혼자만 아파다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악플로 괴로운 때 주변에 털어놓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악플로 인한 아픔

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휴대용 판매원이었던 '폴 포츠'는 2007년 영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ITV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가수로 거듭났다. 선플운동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취지의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조용태 기자

에스.엠. "악플퇴치 선플운동 참여하겠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선플운동 실천협약식 개최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대표 김영민)는 1월 28일(수) 15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인터넷상의 악플퇴치와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선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선플재단과 공동으로 악플 피해 예방을 위한 선플달기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의 선플운동 참여로 인터넷 상의 악플 추방과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

현재 7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선플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교육청의 경우 선플운동을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절반이하로 감소하여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 교육부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 갈취 등 학교폭력의 규모는 줄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플 인성 교육과 캠페인 활동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플운동은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알게 하고,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선플달기 과제를 내어 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용태 기자

선플청년포럼, 바른 신체 바른 정신 함양 서울 4대문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 개최

선플청년포럼(회장 정은채)은 5월 23일(토) 11시부터 서울의 4대문인 숙정문, 흥인지문, 승례문, 돈의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웰니스 걷기대회는 학생들과 교사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땀방울을 지고 여가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선플운동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우호를 다지는 한중일 평화선언식 및 선플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웰니스 걷기대회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갖춰주어 결국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데 목적을 갖고 지나친 모바일 사용으로 골격계 변화로 인한 청소년 질병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악플로 인해 서로를 헐뜯고 욕하는 인터넷 문화가 광배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는 우리사회를 폐쇄하게 만든다"며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의 바른 워킹을 통해 수많은 악플러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체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증후군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세대에 맞는 바른 자세의 걷기와 체조를 통한 자세교정은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최근 정은채 회장은 웰니스코칭서비스를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국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건강지킴이로 더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의 악플을 막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어려운 아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선플웰니스 걷기대회 및 선플웰니스 인성체조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조용태 기자

김해 신안초, 학생들이 직접 뽑은 '친절 환대 가게' 인증 스티커 수여

김해신안초등학교(교장 이운옥)가 환대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선플달기운동본부와 함께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환대실천캠페인의 일환으로 환대실천 거리캠페인과 청소년이 뽑은 친절환대 가게 인증을 진행하였다. 신안초 5학년 학생들은 여러 가게들 중에서 평소 학생들에게 친절한 가게 10개를 선정하고, 일주일 동안 방문시간을 두고 직접 방문하면서 친절도를 조사하여 최종 학생들이 선정한 친절환대 가게를 뽑았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5학년 학생들은 우드락에 친절한 가게 10개의 이름을 적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포스트잇에 내가 왜 그 가게를 친절하게 생각 하는지 이유를 적어 우드락에 붙여 포스트잇이 가장 많이 붙은 가게가 최종 학생들이 선정한 친절환대 가게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 3월 17일 친절가게 3곳을 직접 방문하여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친절환대 가게로 선정된 절차를 설명하고 '청소년이 선정한 친절 환대 가게' 스티커를 증정하였다. 친절 환대 가게로 선정된 '오렌지 팟' 사장님은 "김해시가 뽑은 모범가게가 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으면서 내 자녀와 생각하고 어린이들에게 항상 웃으며 대화했는데, 그 결과 이런 행복을



김해 신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환대실천 거리캠페인을 하고있다. (박현성)

누리게 되었다"면서 너무나 좋아했다. "학생들이 적은 글들을 다 읽어보면 제이저 방법" 사장님은 "학생들이 저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 가게를 친절가게라고 생각하는

지 학생들이 적은 글들을 다 읽어보면 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게 되어 너무 색다른

경험"이라면서 "앞으로 더 멀이나 행동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배려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 회장님으로 야간 순찰활동이나 청소년 선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학생들과 친절한 대화를 하는 등 그런 모습에 학생들이 친절 환대 가게로 선정한 '돈 돼지' 사장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다"며 "이번 친절 환대 캠페인은 신안초 주변 가게들의 친절도 향상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는데, 학생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캠페인 현수막과 표어를 들고 캠페인 하는 모습을 보고, 이밖에 선정되지 못한 가게들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테니 다음에도 다시 한 번 친절환대 가게로 선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현성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친절가게를 선정하고, 찾아가 인증스티커를 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면서 "김해신안초에서 시작된 이번 친절환대가게 선정 캠페인이 경남 나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친절한 대한민국이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태 기자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와 선플청년포럼 정은채 회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 하고 있다.

선플누리단 '선플 평화선언식' 개최

경남 김해에서 선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해신안초등학교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김해 율하공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 평화선언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문화체육부와 선플재단이 5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중.일 청소년 선플 평화선언식에 맞춰 학교 자체적으로 제작한 선플티를 입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표어를 들고, 율하공원에 나들이 온 김해 시민들에게 건전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선플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선플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한중일 3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중국 베이징의 행사현장

은 중국 인민망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는 등 선플 운동 최고의 중요 행사인데, 김해신안초 선플누리단은 서울과 동시에 지방(경남)에서도 선플선언식을 개최하여 선플운동이 지방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2014년 선플지도자 대상(외교부장관상) 박현성 지도교사는 "선플운동은 인터넷에서 선한 댓글을 다는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등의 친구를 배려하는 모든 운동이 선플운동이 될 수 있다"며, "선플 운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하나의 캠페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기자

선플재단-서울시의회, 선플선언문 전달식 및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 개최



(왼쪽부터)현동권 선플포럼회장, 장홍순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성중기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건국대 교수), 박근호 서울시의회 의원, 김해린 서울시의회 의원, 김중복 선플서울포럼회장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과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장홍순, 장홍순 의원)는 4월 23일 13:30, 서울시의회 1층 귀빈실에서 선플선언문 전달식 및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장홍순,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박래학, 김해린, 김중복 등이 참석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선플선언문 전달식"에서 "선플운동을 통하여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건전한 토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양정사"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와 "선플재단"은 선플운동실천협약식을 갖고

조용태 기자

충북 “세종 나신 날을 아시나요?”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태어나신 날 알리기 나서

“세종 나신 날을 아시나요?” 김봉석(청주공고 3년)군은 지난 15일 청주 성안길을 방문했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매년 5월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종 나신 날’이었던 것.

김군은 “스승의 날로만 알았던 15일이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인 것은 전혀 몰랐다”며 “학교에서도 전혀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사실을 배웠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스승의 날’과 ‘세종 나신 날’의 관계를 아는 충북도민은 많지 않다.

취재 결과 120여명 중 90여명이 ‘세종 나신 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즉, 도민 10명 중 8명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만 알고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대 국어문화원 등은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청주 청소년 공원에서 1회 세종 나신 날 행사를 열었다.

청주대 국어문화원은 지난달 3일까지 1기 우리말 가꿈이 참가자를 모집해 60명의 ‘우리말 가꿈이’를 선정했다. 가꿈이들은 도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우리말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모집했다. 100여명의 도민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받아쓰기 대회, 세종대왕 사형시 응모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다.

변문선(25·청주 청원구 내덕동)씨는 “대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알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세종대왕 탄신일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최연락 충북도 문화예술과 주무관은 “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만 해줄 뿐인데 많은 대학생이 참여, 직접 기획 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놀랍다”며 “우리말 가꿈이 활동을 통해 많은 도민이 한글에 대해



한 할아버지가 15일 오후 2시 청주 청소년 공원에서 열린 ‘세종 나신 날’ 행사 중 받아쓰기에 참여해 정답권을 들고 있다.

관심을 갖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승의 날은 1963년 대한적십자국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한 5월 26일이었으나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5월 15일로 변경됐다. 김준식 기자



‘전북도 우리말 가꿈이’ 한옥마을서 거리 홍보

“아름다운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세요” 대학생·고교생 등 참여

2015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청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우리말 가꿈이 사업은 국민들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이 활동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전북에서는 전주대 국어교육원 주도로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는 지난 24일 오후 전주한옥마을에서 여는 마당 행사를 갖

고 한옥마을 일대에서 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여는 마당에서 심보균 전북도행정부지사는 “나랏말을 바로 세우는 일이 나라의 일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아름다운 언어문화로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우리말 가꿈이들은 파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모듬벌로 전주한옥마을을 돌며 시민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시민들에게 우리말 맞춤법 문제를 내기도 하고, 교복을 입고 깨끗하게 색색의 풍선을 나누어 주며 모습에 따라 다양한 거리 홍보를 선보였다.

전북도 우리말 가꿈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내 마루지에서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청소년 언어 순화, 공공언어 평가, 한글날 기념행사 등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관련해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상대, 스승의 날 맞아 세종대왕에게 감사 편지 쓰기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 앞장 대학생 동아리 창원 용지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활동

국립 경상대학교(GNU·총장 권순기) 국어문화원(원장 임규홍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 회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창원 용지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말 가꿈이’는 범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동아리로 경상남도의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년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경상대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말 가꿈이는 ▲청소년언어·공공언어·방송언어 실태 조사 ▲토박이말 연구 ▲한글날 기념행사 ▲우리말 알리기 거리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알리고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활동을 펼친다.



지난 4월 24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말 가꿈이’들은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창원 용지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한 5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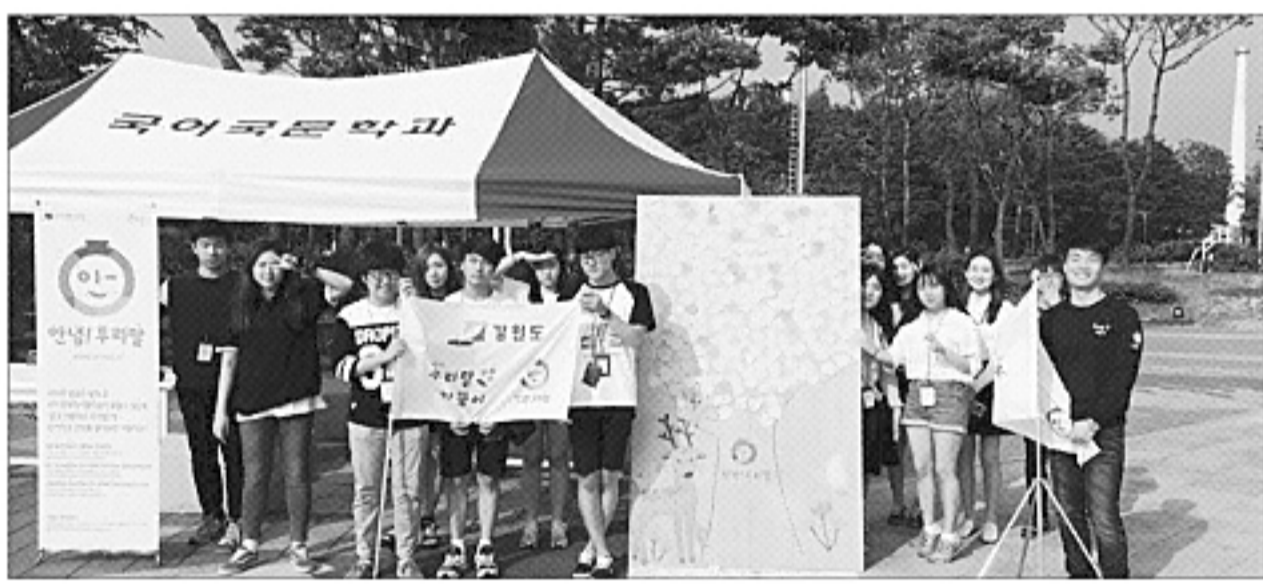
강원도 우리말 가꿈이는 사랑의 나무 만들기 행사

강원대학교 함인섭 광장과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

5월 15일 가정의 달, 세종대왕 나신 날이자 스승의 날을 맞아 강원도 우리말 가꿈이는 강원대학교 함인섭 광장과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무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우리말과 한글사랑, 세종대왕에 대한 마음, 품고 있는 소망을 나뭇잎 집착 메모지에 정성스레 담았다.

풍성해진 ‘안녕! 우리말 나무’는 우리 모두의 우리말, 한글 사랑과 가족 사랑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 활동 본격화

울산대에서 ‘선배와 함께하는 우리말 나누기’ 행사

지난달 24일 출범한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대표 최효정)는 13일 오후 2시 30분 울산대 20호관 215호에서 ‘선배와 함께하는 우리말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날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사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언어순화 교육이 진행됐다. 또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는 오는 15일

세종대왕 탄생 일을 맞아 ‘세종 나신 날’에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후 4시 울산대공원 남문에서 우리말 전시·우리말 천가방 만들기·우리말 따라 쓰기·우리말 판박이 스티커 붙이기 등 행사가 진행된다.

울산 우리말 가꿈이 최효정 대표는 “5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한글 구슬’을 잘 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othing protects quite like HJ PnA

사/업/분/야

- UPS 설비구축
- 항온항습기 설비구축
- STS 설비구축
- Generator 설비구축
- Battery 설비구축
- 가스소방 설비구축
- 수변전 설비구축
- 전기공사
- IDC 컨설팅 서비스

HJ PnA는 Mission Critical 인프라가 요구되는 반도체, 전산센터, 병원 발전시스템에 UPS, 배터리, 발전기, 공조시스템 등을 고객의 요건에 맞춰 최적의 설계, 시스템 조항, 정밀 시공 그리고 안정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Never Stop Solution 으로서 소중한 고객의 재산, 데이터 및 정보 생산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 입니다.

Be Happy and Joy with HJ PnA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9 본사(공정) :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수레섬길 14
 TEL. 02 2281 0035 / www.hajipn.com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